

# 효성중, K-전력기기 수출 선봉... 조현준 회장 '현장경영' 주효

美·유럽 등 글로벌 수주 행진  
호주서 1425억 ESS EPC 계약  
조 회장, 현지 네트워크 뒷받침



(왼쪽 네번째)효성 조현준 회장이 지난 1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랜 블랙 CEO 등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전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K-전력기기 수출의 선봉에 섰다.

효성중공업은 '탕캄 BESS Pty Ltd.'와 1425억원 규모의 ESS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MW/200MW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말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에도 미국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7870억원 규모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핀란드에서는 29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엔 호주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글로벌 전역에서 K-전

력기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 ESS를 공급하는 첫 사례로, 호주 정부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

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되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안정화 설비가 필수적이다.

효성중공업의 이번 ESS 구축은 이러한 호주 전력망 안정화에 직결되는 핵심 솔루션이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실시간 주파수 조정을 통해 전력망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효성중공업은 자체 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제어부터 전력기기 연동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제어 기술을 선보인다. 효성중공업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저명한 리서치 기관인 BNEF의 최우수 ESS 업체로도 등재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호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전력기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수주 행진은 전세계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한 효성 조현준 회장의 '현장 경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호주 수주의 경우에도 조회장이 호주 주요 유틸리티사 경영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 고위층들을 만나는 등

현지 인사들과 이어온 폭넓은 교류가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주미 호주 대사) 등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 호주의 에너지 인프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지난 1월에는 호주 경제인연합회(BCA) 브랜 블랙 CEO 등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전력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전력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효성중공업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역량을 비롯해 초고압변압기·차단기 등에서 쌓아온 높은 신뢰와 ESS, 스택콤 등 미래 핵심기술을 결합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K-전력기기 위상을 높여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메모리 가격 천정부지... IT업계, 제조원가 압력 커져

스마트폰·노트북 등 주요 기기 영향  
물류 비용도 경중... 가격 인상 줄이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전반에 가격 인상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주요 IT 기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같은 기간 90% 이상 급등하며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도매가

200달러 이하 보급형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6GB LPDDR4X와 128GB eMMC를 탑재한 모델을 기준으로 다른 부품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1분기 총원가가 전 분기 대비 약 2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전체 원가에서 메모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프리미엄과 플래그십 스마트폰 비용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또한 원가 압박 영향으로 전 모델 평균 가격이 직전 모델 대비 10만원 가량 인상됐다.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은 대용량 메모리 탑재와 함께 2나노 공정 기반 시스템온칩(SoC) 적용이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800

달러 이상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2분기까지 전체 원가가 약 100~150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원가 내 D램 비중은 23%, 1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전략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형 모델의 예상 출하량을 줄이며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노트북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의 고정가격은 전월 대비 13.04% 오른 1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북 6 프로'는 260만원부터 351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지난해 176만원에서 시

작했던 가격과 대비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32만원부터 493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3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50 시리즈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부품을 탑재한 영향도 있으니 D램 가격 폭등 인상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그램 프로 AI 2026'도 3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사양 모델 대비 약 5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토요자동차, 하남 서비스센터 오픈

한국토요자동차는 경기도 하남시에 렉서스·토요타 하남 전시장 및 종합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1만1570㎡(약 3500평) 규모로 차량 판매, 서비스, 부품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3S 콘셉트의 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토요자동차

## 현대차그룹-화유리사이클 인니 EV 배터리 사업 맞춘

지속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마련 방침

현대차그룹은 12일 서울 양재사옥에서 화유리사이클과 '인도네시아 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정호근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장 부사장, 바오웨이 화유리사이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공장인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 현지 거점에서 블랙매스로 전처리한다. 향후 수명이 다한 배터리 재활용 등 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전 단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MOU는 배터리 수명 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배터리 공급망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접근성 개선 제품·솔루션 선보

CSUN AT 참가... 키오스크 등 소개

LG전자가 오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진행되는 접근성 콘퍼런스 'CSUN AT 2026(씨선 에이티 2026)'에 참가해 누구나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장애인, 시니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시에는 점자기기 전문기업 닷(Dot)과 공동 개발한 키오스크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장애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패널, 수어 안내, 스크린리더 등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통합 적용한 제품이다. 이외에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접근성 콘퍼런스인 'CSUN AT 2026'에 참가해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전시장을 찾은 고객이 수어안내가 적용된 키오스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전자

관없이 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콤포트 키트' 액세서리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사·청각 지원 기능인 '음성 메뉴 읽어주기', '수어 메뉴 읽기', '보청기·스피커 동시듣기' 등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 LS그룹,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신기록'

매출 45.7조, 영업이익 1.5조

LS그룹이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MnM 등의 사업 호조로 지난해(12개사 합계·내부회계 기준)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2024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실적 개선에는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 두 회사는 글로벌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초고압·해저케이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부스덕트 등 송전·변전·배전을 아우르는 토

탈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주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지난해 기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12조원을 웃도는 수주잔고를 확보하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LSMnM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와 함께 황산 및 귀금속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LS엠트론·E1·INVENI 등 주요 계열사들도 북미 사출기 시장 안착, LPG 트레이딩 실적 개선, 투자 전문성 강화에 따른 투자수의 확대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

한편 LS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 7조 원, 해외 5조 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해 그룹 비전 2030인 자산 50조 원 달성과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은 기자 dhalehale@